

# 1. 형태론

## (1) 미지칭과 부정칭

미지칭 대명사 / 부정칭 대명사 - 인칭, 사물 모두

- ㉠ 미지칭 대명사: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무엇인지 **모를 때** 사용  
 예 누구세요? 날짜가 언제야? 장소가 어디야? 그게 무엇이니?
- ㉡ 부정칭 대명사: **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(아무) 굳이 밝히지 않는 것**  
 예 누구나 환영입니다. 언제든지 물어봐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 
 예 그는 뭘에 홀린 듯이 걸어갔다. 오늘은 어디 갈 데가 있어.

### ㉢참고 - 미지칭과 부정칭의 구별법

‘누구, 언제, 어디, 무엇’ 등 형태가 똑같아 구별이 쉽지 않다. 그러나 핵심은 미지칭(未知稱)은 ‘알지 못하는(모르는) 것’, 부정칭(不定稱)은 ‘정해지지 않은 것’이라는 정의이다. 더 쉽게 말하면 부정칭은 ①‘아무’를 넣어서 말이 되거나(예누구나 환영입니다 → 아무나 환영입니다), ②굳이 밝히지 않는 경우(예우리 뭘 좀 할 게 있어)이고, 그 외에 몰라서 묻는 질문은 대부분 미지칭이다.

### #1 2007학년도(2006년) 6월

<보기>의 ㉠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?

— <보 기> —

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‘나, 우리’와 같은 1인칭, ‘너, 자네, 그대’와 같은 2인칭, ‘이분, 그분, 이이, 그이’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. ㉠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, 2인칭,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.

- 가. 당신은 누구십니까? (2인칭)
- 나.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. (3인칭)

- ① 가: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였습니다.  
 나: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.
- ② 가: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?  
 나: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.
- ③ 가: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.  
 나: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.
- ④ 가: 너희를 누가 불렀니  
 나: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.
- ⑤ 가: 우리 먼저 갈게요.  
 나: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.

## (2) ‘있다’와 ‘없다’의 품사

결론부터 말하면 ‘있다’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있고, ‘없다’는 형용사이다. ‘있다’가 [머물다]의 의미일 때에는 동사, [소유], [소재]의 의미일 때는 형용사이다. 물론 ‘-는다’를 결합해 보면 알 수 있다.

예 여기에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.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. - [머물다]

나는 책이 10권 있다.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. - [소유]

컵이 책상에 있다. 방 안에 사람이 있다. - [소재]

‘없다’는 항상 형용사이지만 동사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.(예너는 생각이 없는거니? 아무도 없느냐?) 그러나 품사는 형용사임을 알아두자.

### (3) 본용언과 보조용언

용언이 두 개 나열되었을 때는 '본용언+본용언'이거나 '본용언+보조용언'의 구성이다. 보조용언은 본용언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.

- ① 본용언 + 본용언: 두 용언의 의미가 모두 살아있다.
  - ☞ 종이를 휴지통에 **찢어 버린다**.
  - 그는 학교에 밥을 **먹고 간다**.
  - 문을 **열고 나가라**.
  - 돈을 한꺼번에 말고 **나눠서 주어라**.

- ② 본용언 + 보조용언: 보조 용언은 본용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.
  - ☞ 내가 아끼는 옷을 동생이 **찢어 버렸다**.
  - 밥을 다 **먹어 간다**.
  - 그는 붓을 들고 글을 써 **나가기** 시작했다.
  - 나는 그를 도와 **주었다**.

◎참고 - 보조용언의 품사

보조용언 역시, 보조 동사가 있고, 보조 형용사가 있다. 품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일반 동사, 형용사의 구별법과 다르지 않다. '않다'와 '못하다'는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 둘 다 쓰이는데 그 품사는 본용언의 품사를 따라간다.

☞ 찢어 버리다 - 찢어 버린다 / 다 먹어 가다 - 먹어 간다 / 읽어 보다 - 읽어 본다  
가고 싶다 - 가고 싶는다(X) / 쉽지 않다 - 쉽지 않는다(X) / 편안하지 못하다 - 편안하지 못한다(X)  
먹지 않다 - 먹지 않는다 / 먹지 못하다 - 먹지 못한다

#2 2017학년도(2016년) 6월 평가원 변형  
<보기>의 ㉠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?

— <보기> —

악기가 ㉠**내는** 소리의 식별  
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㉡**내는** 형식

㉠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. 그러나 ㉡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'보조 용언' 기능을 한다.

-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.
-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.
-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되라.
-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.
-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.